‘달랑 두 칸’ 그래도 꼭 필요하다면!

이홍재의 세상만사

주필

‘십년공부(十年工夫) 도로 아미타불’이란 말이 있다. 고생만 하고 아무 소득이 없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나무아미타불은 산스크리트어라고도 하는 범어(梵語)의 ‘나마스 아미타바’(Namas Amitabha)에 기원한다. 나마스(Namas)는 ‘두 손을 마주 대고 머리를 조아려 경배하다’라는 뜻이다. 지금도 인도나 네팔에 가면 ‘나마스테’라는 인사말을 주고받는데, 이 또한 나마스에서 유래됐을 것이라 짐작해 본다.

아미타바(Amitabha)는 ‘서방 정토에 있는 부처의 이름’이다. 그러므로 ‘나마스 아미타바’는 ‘아미타불에 의지하여 귀의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한데 이 말이 중국어에서는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로 음차(音借)가 됐다. 그러니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남쪽에는 아미타불이 없다’란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미타불은 ‘온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이며, 염불(念佛)할 때 외는 소리이기도 하다. 스님은 평생을 두고 아미타불을 외운다. 그러나 아무런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우리는 ‘도로 아미타불’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도로’란 단어는 ‘본래의 상태대로’를 의미하는 우리말 부사다. 그렇지만 이 말 역시 한자말인 ‘도로’(徒勞:보람 없이 애쓰거나 헛되이 수고함)에서 나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한자 ‘도’(徒)에는 ‘무리’(衆)라는 뜻 외에 ‘헛되다’, 그리고 ‘도수 체조’나 ‘도수 치료’에서 보듯 ‘맨손’이라는 의미도 있다.)

건설 비용 걱정은 되지만

‘도로무공’(徒勞無功)이라 하면 헛되이 수고만 하고 공을 들인 보람이 전혀 없음을 뜻한다. 도로무공! 16년 동안 숱한 논란만 이어 온 ‘도시철도 2호선’에 이처럼 딱 어울리는 사자성어가 어디 있을까. 시장이 바뀔 때마다 하느니 마느니, 이걸로 하느니 저걸로 하느니, 말만 무성한 채 결국은 ‘도로 아미타불’이 되고 말았으니 말이다.

4년 전에도 그랬다. 똑같은 일이 민선 7기 들어와서도 반복되었다. 그때의 윤장현 시장이나 지금의 이용섭 시장이나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것은 ‘돈’ 때문이다. 찬성 측이나 반대 측이나 돈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만은 결코 부정하지 못한다. 2호선 건설에 대한 찬반이 갈리는 것도 안전성이니 뭐니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광주 시내 곳곳에는 수백여 장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그중에 가장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달랑 두 칸(좌석 36개), 지하철 2호선 2조 600억 원?’이라는 문구다. 반대 측은 일단 ‘달랑 두 칸’이라는 강렬한 문구로 단번에 시민들의 시선을 붙잡는 데 성공했다. 그러니 일단 프레임을 잘 짠 것으로 봐도 되겠다. ‘프레임’(Frame)은 흔히 액자의 틀이나 안경테 등을 말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을 의미한다. 이것은 모두 어떤 것을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세상에 대한 비유, 사람들에 대한 고정 관념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도시철도라 하면 적어도 10여 칸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차 정도를 연상했던 시민들로서는 ‘달랑 두 칸’이라니! 그것도 2조가 넘는 돈이 투입된다니! 하면서 금방 반대로 돌아설 만하다. 달랑 두 칸! 이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해서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어느 극렬 반대론자의 백 마디 말보다 더 파급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 프레임을 잘 짰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의식했는지 찬성 측도 광주 시내 곳곳에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2호선은 작지만 강한 지하철, 하루 43만 명 수송 능력. 버스 1024대 효과.’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2량 기준 만차 시 150여 명인데 3량으로 증량했을 때는 200여 명까지 늘어나며, 또한 4~9분의 운행 간격으로 1일 수송 인원을 산출하면 43만 명이나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달랑 2칸짜리 지하철’이 아니라 ‘시내버스 1024대를 품은 지하철’이라는 것이다.

수송 능력과 아울러 문제가 되는 것은 건설 비용이다. 반대 측은 광주의 재정 자립도가 6대 특·광역시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도시철도 2호선은 ‘지자체 파산으로 가는 폭주 기관차’와도 같다는 주장을 편다. 더욱이 만성 누적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운영 비용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찬성 측은 ‘반대 단체들이 지나치게 비용은 늘리고 편익은 축소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광주 2호선 건설 비용은 2조579억 원인데 이중 60%가 국가 지원액인 국비(1조2000억 원)로, 광주시는 남은 40%(8231억 원)만 부담하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는 것이다.

지하철은 서민 위한 공공재

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찬반 양측의 주장을 개괄해 보았다. 그럼 누군가 ‘너는 어느 편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찬성 쪽에 줄을 서겠다. 왜냐하면 지하철은 다소 적자를 보더라도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공재(公共財)이기 때문이다. 돈은 끝없이 투자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돈은 별로 없는 분야는 의외로 많다.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이 그러한데, 그렇다 해서 이들 문화 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은 없을 것이다.

물론 광주시의 비용 감당 능력이 다소 걱정되긴 하지만, 지하철 건설로 인한 긍정적인 요인은 생각보다 훨씬 많다. 우선 차량 매연을 줄여 대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 매년 도로 확장 또는 신설이나 주차장 설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도 교통 체증으로부터 서민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점 등등.

2호선이 건설되면 1호선과 환승 연계되면서 대중교통 활성화란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것은 물론 지하철의 효율도 보다 높일 수 있다. 여론 조사에서 공익과 교통 복지 및 인프라 구축을 바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우세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2호선 건설은 ‘시민과 전문가 및 공무원들이 10여 년간 연구하고 토론하며 맺어 낸 도시 공학과 지역 발전에 대한 철학의 결정체’라는 말에 동의한다. 미래 일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겠지만 2호선 건설에 대한 시의 재정 여건은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니 일단 믿어 보기로 한다.

이제 내일이면 16년간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운명이 결정된다. 건설이냐 중단이냐?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아름다운 승복’이 있어야겠다. 만약 내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이가 있다면, ‘천탈관 득일점(天脫冠 得一點) 내실장 횡일대(乃失杖 橫一帶)’라는 욕을 들려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광주 ‘인쇄 거리’ 도로 확장 길 열렸다

‘공사 불가’ 문화전당, 시 상대 소송 패소…시 “최초 교통영향평가 결과대로 전당 측 공사 진행해야”

광주시 동구 ‘인쇄의 거리’ 일대의 도로를 넓힐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도로 확장공사를 두고 광주시와 아시아문화전당이 수년째 맞선 가운데 법원이 광주시의 손을 들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정부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광주시는 2005년 아시아문화전당 신축과 관련해 교통영향평가를 했고, 아시아문화전당~전대병원 간 605m 길이 도로 폭을 기존 15m에서 25m로 확장하는 조건으로 심의를 의결했다.

전당 측은 2007~2011년 2·3차 심의를 진행하는 동안 별다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주변 도로 390m의 폭을 확장했지만 ‘인쇄 거리’로 불리는 전대병원 오거리 인근 215m는 확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시아문화전당 측은 2013년과 2015년 인쇄 거리 등을 포함해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요청을 했다. 지난 2016년에도 인쇄 거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요청했지만, 광주시가 이미 의결된 사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전당 측은 “공사 중 사정 변경이 있으면 변경 심의 때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최초 심의 당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기획재정부로부터 ‘목적 외 사업이므로 도로 관리 주체인 광주시가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사업 예산 반영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소송이 기각된 만큼 최초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대로 전당 측이 확장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함평천지한우 드세요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8일 광주시청 잔디광장에서 ‘함평천지한우 소비촉진행사’가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이 함평한우 요리를 시식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작권 전환·주한미군 재배치 차질없이 추진해야”

문 대통령 ‘연합사 창설’ 축사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한미연합사령관 이·취임식에 보낸 ‘연합사 창설 40주년’ 축사를 통해 “지난 40년, 평화와 안보를 향한 한미연합군사령부의 투철한 사명감이 오늘날 대한민국 번영의 기틀이 되었다”며 “장병 여러분의 헌신에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로서 감사의 경례를 보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지난 31개월, 연합사령관의 소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이임하는 브룩스 사령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임 에이브럼스 사령관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에이브럼스 사령관을 중심으로 더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유지될 것이라 믿는다”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재배치 등 당면한 현안 과제들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기적과 같은 역사는 강력한 한미연합방위의 뒷받침 덕분”이라며 “한미연합군사령부 장병들을 무한 신뢰하며 항상 영광과 무운이 함께 하길 기원한다. We go together(같이 갑시다)”라고 했다.

한미연합사는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미래연합군사령부로 재편돼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새로운 지휘구조로 변경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사66주년

★투자자 모집★
· 경매 입찰/낙찰 물건
· 연 30%이상 수익가능
· 소유권/근저당으로 채권보장
(주)오천경매.010-3605-5000

임야
지분물건/문중산 환영
바로삽니다.010-6834-74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광주광역시 인구보건복지협회 | 광주전남지회
함께하면 ‘든든’육아 성공비법
직장눈치문화 제로법
직장맘 & 대디에게 눈치 주는 대신 배려하는 직장문화 만들기!!
슈퍼맘 방지법
육아를 ‘도와주는’ 아빠에서 ‘함께’ 하는 아빠되기!!
직장 가족 이웃
육아훈수 주의법
서툰 육아에 ‘훈수’ 대신 ‘힘들지’ 따뜻한 한마디 건네기!!
육아대디 지지법
아빠들의 육아에 ‘칭찬, 격려, 응원’하기!
든든육아 동참법
풍앗이 육아, 아이 안전 지킴이, 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불균형개선
광주광역시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가 함께 합니다

펜션·가든 부지 매매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장성 편백숲 5분거리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완도 약산면 바다인접 주택 대지 607㎡ 주택 70㎡ 1억천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600만원
• 보성 문덕면 대원사입구 전원주택지 4113㎡ 교환가능 4억4천
주택·원룸·아파트
• 아파트 서구 농성동 제일파크 14층 105㎡ 깨끗함, 리모델링완료 1억7천
• 월산동 농성초 건너편 소방도접 대지 149㎡ 2층주택 115㎡ 1억3천
• 서구 쌍촌동 2층 주택 땅 105㎡ 새 주택 118㎡ 운천저수지부근 2억7천
투자·매도·교환
• 장성 삼계면 주산리 상업지 432㎡ 장기투자에 적합 5200만원
• 장성 삼계면 상업지 601㎡ 투자에 양호 은행 1억 매도 3천만원
• 영광 법성포 계획관리지역 15274㎡ 농장적합 1억3천
• 강진 신전면 태양광 적합지 30259㎡와 주택 5억5천
• 무안 청계 목포대학부근 주거지 답 4413㎡ 은행 2억4천 매도 7천
• 소태동 대지 261㎡ 주택 78㎡ 조용한 생활 적합 1억9천
• 담양 월산면 가든 땅 1658㎡ 상가주택과 교환원 6억2천
• 남평읍 평산리 답·전 8461㎡ 공시지가 2억천 투자에 양호 8억2천
• 광산구 대산동 잡종지 등 1554㎡ 창고 등 다용도적합 3억7천
• 동구 용산동 대지 등 2449㎡ 다세대-빌라·사찰 등 적합 10억 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접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옥적합 7억7천
• 유동 소방도 상업지 331㎡ 상가·원룸·빌라 적합 4억7천
상가건물
• 나주시 영산포 상업지 550㎡ 상가주택 459㎡ 교환가능 4억8천
• 동구 서석동 대지 404㎡ 5층건물 919㎡ 9천에 월300수익 10억2천
• 양산동 대지 231㎡ 4층 안집과 원룸·투룸 497㎡ 교환가능 6억7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 농성초부근 2차선접 상가주택 땅 172㎡ 건평 279㎡ 4억5천
• 순천만 대대동 팬션 땅 332㎡ 객실8, 관리실, 은행3억 영업잘됨 3억천
• 양림동 땅 274㎡ 건물 751㎡ 요양병원할 건물과 교환가 16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